

지역 소식통

부안군 행복드림반
설 맞이 집중 운영

부안군 사회복지과 행복드림반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사회 취약계층 54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지 안전 점검 및 누전차단기 교체 등 설맞이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을 펼쳤다.

이번 집중 운영 기간에는 (주)한결전기 김형균 대표 외 3인이 2주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사업에 큰 힘을 보탰다.

부안군 행복드림반은 2023년에도 사회 취약계층 거주지에 대해 1,400여 건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지역의 효과적 역할을 톡톡히 했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추운 겨울에 지친 몸과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드리고 싶었다."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논·밭두렁 및 불법소각 자체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자체를 당부했다.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해로운 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해 미세먼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발생 원인을 집계한 결과 논·밭두렁 소각이 2위, 쓰레기 소각이 3위로 나타나 화재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논밭에는 익충이 89%, 해충이 11% 서식하고 있어 논·밭을 태우게 되면 익충이 해충보다 더 많이 죽게 돼 논·밭두렁 태우기가 유익한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자연친화적인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생활여건 개선 앞장

2027년까지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구축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조성액 5억원) 운영 등

2024년 갑진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기치로 군민 소득향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가계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높이기와 '맞춤형'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한민국 농촌 3대 현안과제(소득, 일손, 복지)를 고창군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25일 고창군농업인회관 준공식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의 축사다. 그만큼 민선 8기 고창군정의 농업소득 향상은 간절하다.

올해 고창군의 농업 소득향상 사업의 핵심은 '농가부담 낮추기'와 '농업 부가가치 향상'으로 압축된다.

먼저, 162개 농업보조사업의 신청 서

류를 대폭 간소화 하면서 농업인 불편 해소에 나섰다. 농업인인 기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7~8종의 서류대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을 구축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고창군에 저온저장고 20동과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만든다. 배추, 무, 고추, 양파, 소금 농가의 판로확대는 물론, 2차 가공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안정적인 수급조절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매년 이삼기후로 시름이 깊은 지역 농가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됐다. 올해부터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조성액 5억원)'을 본격 운영해 농촌경제를 지탱할 최후

의 보루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가 재해보험을 자부담을 취임 후 매년 5%씩 줄여 2022년 20%에서, 2023년 15%, 올해 10%까지 낮아졌다. 소농(경작면적이 5,000㎡이하) 직불금의 단가도 기존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일손을 도왔고,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1,6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가를 받아냈습니다.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사도 준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더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드론방제와 농기계 임대사업, 스마트팜 확대 등을 통해 고된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력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

화장시설은 설 명절 당일 휴무

정읍시는 이번 설 연휴에 서남권 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봉안당과 자연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화장시설은 설 당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2만명 이상 방문이 예상돼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봉안당 내 제례실 사용을 금지하

고, 당일 화장유골을 제외하고는 봉안당 사용 및 안치단 개폐를 하지 않는다.

또한 당일 화장유골을 제외하고는 자연장 사용신청도 불가하며, 연휴 기간에는 성묘객의 안전을 위해 봉안유골의 봉안당이나 자연장으로의 이동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당일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니 명절 당일의 성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며 "조상

의 은덕을 기리는 안전하고 소중한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권 추모공원은 설 연휴동안 방문하는 추모객들을 위하여 자연장 및 주변 일대를 정비했다.

아울러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설에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안내를 위한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성묘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설 명절 물가 안정 종합상황실 운영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서민 가계에 가중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고창군은 8일까지 물가대책반(5개반)을 편성, 운영해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관리하

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물가대책반은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학수 정읍시장, '설 연휴 시민불편 최소화·공직기강 확립'

정읍시는 5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학수 시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구석구석 살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특히 읍주순전과 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각종 선거 관련 행사를 후원하거나, 특정 정당에 당사를 방문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어려운 이웃 위해 써주세요" 부안군향우회는 설 명절을 맞아 최근 열린 부안군 일선 지도자 위안잔치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부안군에 기탁했다.

부안 위도면,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성료

군정 비전공유·어촌뉴딜 민생현장 방문 주민 애로사항 청취 등

권익현 부안군수는 5일 위도면 주민복지센터에서 기관·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군민과의 열린소통 대화의 시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부안군 근농인재육성 장학금을 신청재(깊은금이장)씨가 100만원, 위도 체육회(회장 김인배)에서 3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위도출신 최연상 서호 대표가 "작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같이 기부해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위도면 주민과의 열린 소통 대화는 면정 주요업무 보고, 군정 비전공유, 주민과의 소통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견인청래(堅忍靑來) 슬로건 아래 2024년 부안군의 국정목표와 추진전략을 공유로 면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진솔한 청취·답변으로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후 대리 및 정막마을 경로당, 위도 띠밭놀이전수관 및 어촌뉴딜300(깊은금이마을) 민생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끝으로 위도면민과의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를 마무리하였다.

위도면장(은진)은 "2024년 우리 위도면 직원들은 경사이신(敬事而言)의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미래로 세계로! 주민이 행복한 위도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후 대리 및 정막마을 경로당, 위도 띠밭놀이전수관 및 어촌뉴딜300(깊은금이마을) 민생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끝으로 위도면민과의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를 마무리하였다.

위도면장(은진)은 "2024년 우리 위도면 직원들은 경사이신(敬事而言)의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미래로 세계로! 주민이 행복한 위도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임신·출산 지원 사업 중 일부 소득 기준 제한 폐지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신·출산 지원 사업 중 일부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다.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만원의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는 19세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미숙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수술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및 확진 검사비, 신생아 외래 난청 선별 검사비와 난청 확진 검사비, 만 5세 미만 영유 보청기 지원 사업 또한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강화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